

국제금융시장 4월 동향 및 5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이 유 나 (ynrhee@kdb.co.kr)
 장 명 화 (clarajang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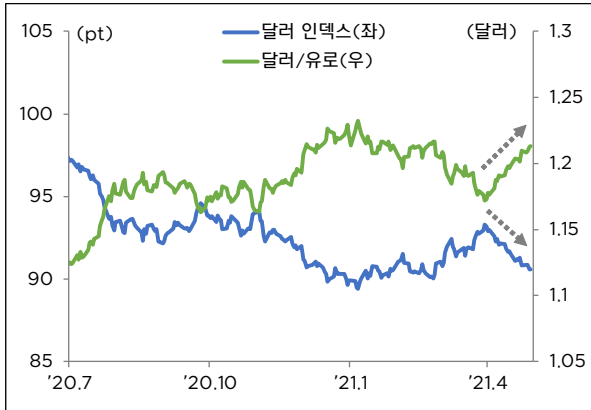
- ◆ **(환율)** 4월 중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이 하락, 5월에도 달러화 약세, 우호적인 수출 여건 등으로 하락압력이 우세할 전망
- ◆ **(금리)** 4월 미 국채 장기금리는 전월말 대비 하락한 반면 일본은 보합, 유럽은 소폭 상승, 5월 들어서도 미 연준의 인플레이 목표(연 2%) 이내 관리 의지와 시장의 상승 욕구가 다소간 대치국면을 이어갈 전망
- ◆ **(주가)** 4월 선진국 증시는 전반적 호조를 보이며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, 5월에도 탄탄한 기업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 주가 상승 기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

□ **(환율)** 4월 중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달러화는 약세, 원/달러 환율은 하락 반전. 5월에도 유로존 등 글로벌 경기개선에 따른 달러화 약세 가운데, 수출 호조 등으로 원/달러 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이 예상

- (달러화) 달러 인덱스*는 4월 중 미 국채 금리와 동반 하락하였으며, 5월 중 유로존 등 글로벌 경기개선 기대로 추가 약세가 가능할 전망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- (동향) 통화정책 정상화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며 4월 들어 미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, 달러 인덱스는 3월초 수준으로 하락
 - 유로존 백신 보급 가속화, 시장 예상에 부합하였던 온건한(dovish) FOMC 결과* 역시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
 - * 4월 FOMC에서 연준은 정책금리(0~0.25%) 및 자산매입 규모(매월 국채 800억달러, MBS 400억달러)를 동결. 파월 의장은 ① 미국 경제가 연준의 목표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, ② 추가 진전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. 또한 ③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, ④ 아직 테이퍼링(tapering)을 논의할 시기가 아님을 재확인
 - (전망)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강화 등으로 달러화의 추가적인 약세 전망
 - 다만,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 등 경기회복세 강화로 인한 테이퍼링 시기에 대한 경계감은 달러화 약세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
- (유로화) 달러/유로 환율은 4월 중 유로존 백신 보급 관련 우려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며 상승하였고, 5월에도 경기회복 기대가 부각되며 상승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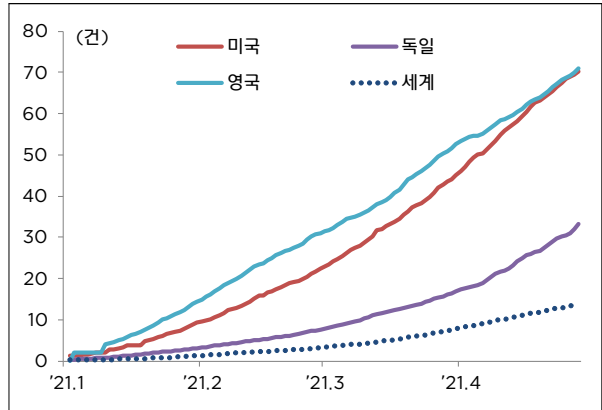
- (동향)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유로존에서의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4월 중순 이후 달러/유로 환율은 1.2달러 선으로 반등
- (전망) 유로존의 백신 보급 가속화,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달러/유로 환율의 추가 상승이 예상

달러 인덱스 및 달러/유로 환율 추이

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주요국 백신 접종 추이



주 : 인구 100명당 총 접종건수를 의미하며, 접종이 여러번 필요할 경우 접종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

자료 : ourworldindata.org

- (원화) 4월 중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으며, 5월에는 우호적인 수출 여건으로 하락압력이 우세할 전망
 - (동향)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배당금 지급 및 환전 수요 관련 우려에도 불구하고, 미 국채 금리 하락 속 달러화 가치 하락, 위험선호 심리 확대 등의 요인들이 이를 상쇄하며 원/달러 환율이 하락
 - (전망) 5월 중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강화에 힘입은 우호적인 수출 여건 지속, 견조한 경제지표 등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의 하락 예상
 - 한편, 개인들의 해외주식 투자 수요,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더딘 국내 백신 접종 속도 등이 하락폭을 제한할 전망

환율 추이

| | '19년말 | '20년말 | '21.3월말 | '21.4월말 | 전월대비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달러 인덱스 | 96.479 | 89.927 | 93.186 | 91.299 | △2.02% |
| 달러/유로 | 1.1219 | 1.2217 | 1.1730 | 1.2020 | +2.47% |
| 엔/달러 | 108.66 | 103.26 | 110.72 | 109.30 | △1.28% |
| 원/달러 | 1,156.4 | 1,086.3 | 1,131.8 | 1,112.3 | △1.72% |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4월 중 미 국채 10년물은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, 일본 국채는 보합, 독일 국채는 소폭 상승 마감, 뚜렷한 경기회복세로 향후 상승압박 지속 예상

- (동향) 4월 중 미국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반 하락 후 후반 반등세를 보여주었으며, 독일 국채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
 -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의 호조*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전월말 1.74%였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.5%대까지 하락하다 1.6% 수준 마감
 - * 3월 소매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+9.8%, CPI(소비자물가지수)는 전년 대비 +2.6%를 기록하는 등 시장 전망치를 상회, 주간실업수당청구건수(18~24일)는 55.3만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3주 연속 경신
 - 이러한 움직임은 연준의 기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 향상, 재정확대 수급책으로서의 조세인상 거론에 따른 시장조달 부담 감소, 미국 경기회복세의 상대적 강세에 따른 일본 등 해외투자자의 미 국채 순매수 확대 등의 영향이 작용
 - 일본은 도쿄 등 4개 지역에 대한 3차 긴급사태 발령(4.25)이 불가피할 만큼의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였으며, 미 국채와의 동조 움직임 등으로 장기금리가 불안정하게 등락하다 전월말 수준 마감
 - 유럽은 ECB의 통화정책 완화기조에는 변함이 없었으나, ECB 총재의 하반기 유럽 경제활동 반등 기대 표출* 등으로 독일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이 1년여만 (4.29)에 최고치(-0.193%)를 경신하는 등 월중 완만한 상승 지속
 - * ECB 라가르드 총재는 6월말까지 유로존 인구의 70%가 1회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ECB에서 전망한 '21년 경제성장률 4%도 달성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
 - (전망) 기대 이상으로 견조한 미국경제 회복 탄력*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과 기준금리를 억제하고자 하는 미 연준 입장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
 - * 미 연준은 4월 FOMC에서 기존의 통화 완화정책 고수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서도, 속도감 있는 백신 보급과 각종 정책적 지원에 힘입은 경제 및 고용동향의 개선을 언급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
 -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합산 신규 확진자수는 최고치를 연일 경신해가는 등 팬데믹 불안정성이 여전한 가운데 각 지역 백신 접종 형편에 따라 경제활동 회복 속도의 편차가 커질 전망

주요국 국채금리 추이

| | '19년말 | '20년말 | '21.3월말 | '21.4월말 | 전월 대비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미국채 10y | 1.9175 | 0.9132 | 1.7404 | 1.6259 | △11.45bp |
| 독일채 10y | -0.1850 | -0.5690 | -0.2920 | -0.2020 | +9.00bp |
| 일본채 10y | -0.0110 | 0.0210 | 0.0950 | 0.0970 | +0.20bp |

자료 : Bloomberg

□ (주가) 4월 주요국 증시는 대체적인 호조를 보이며 전월말 대비 상승, 5월에도 가시적인 대형 악재는 희박한 상황

- (동향) 세계 주요국 증시는 고평가 부담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에 따라 일부 되돌림이 있었으나 경제지표의 호조,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 유지, 일본은 전월말 대비 하락
 - 미 다우존스 지수는 4.16일 사상 최고치(34,200.67)를 재차 경신한 후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반락하기도 했으나, 주요 기업의 실적 뒷받침으로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
 - 나스닥지수 역시 애플, 아마존 등 시장 선두 IT기업들의 1분기 호실적 발표로 4.26일 사상 최고치(14,138.78) 경신 후 강보합
 - 글로벌투자자들은 경기회복 기대를 조기 반영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비해 유럽 시장의 추종을 더 기대하는 추세로, 유로 Stoxx 50은 전월에 이어 소폭 상승
 - Nikkei 225지수는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하락
- (전망) 잠정 기대치를 추월하는 기업실적 호전 증명으로 강화된 시장기대가 5월 증시 안정성을 지탱해줄 전망
 -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개선된 1분기 GDP*성장률 등이 미국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만큼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
 - * '21.1분기 미국 GDP 성장률 : 전기 대비 연율 6.4% ('20.4분기 GDP 성장률 4.3%)
 - 다만, 장기간 시장 고공 피로감 누적에 따른 상시 경계감과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구체화로 인한 일정수준 주가 침식 가능성* 등에 대한 시간적 적응 과정이 소요될 전망
 - * 미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 최고세율을 현행 20.0%에서 39.6%로 대폭 상향,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현행 21%에서 28%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예상되는 매매차익 세금부담 증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및 기업이익 감소에 연동한 주가조정이 불가피할 전망

주요국 주가지수 추이

| | '19년말 | '20년말 | '21.3월말 | '21.4월말 | 전월 대비 |
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다우존스 | 28,538.44 | 30,606.48 | 32,981.55 | 33,874.85 | +2.708% |
| 유로 Stoxx 50 | 3,745.15 | 3,552.64 | 3,919.21 | 3,974.74 | +1.417% |
| Nikkei 225 | 23,656.62 | 27,444.17 | 29,178.80 | 28,812.63 | △1.255% |

자료 : Bloomberg

(담당자 : 환율 - 이유나, 금리·주가 - 장명화)